**만약 고교야구 여자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 (아와사키 나쓰미 / 동아일보사)**

**당신의 인생을 바꿀 피터 드러커의 주옥같은 매니지먼트 이론   
소설로 쉽고 재미있고 읽는다**   
  
“ 피터 드러커에 빠진 고교야구 매니저, 꼴찌팀을 뒤집어놓다!”?   
  
도쿄 호도쿠보 고등학교(일명 호도고)에 다니는 가와시마 미나미는 아픈 친구를 대신해 야구부의 매니저(부 운영을 돕는 보조원) 일을 맡게 된다. 호도고 야구부는 20년 전 딱 한번 고시엔 대회 16강에 진출한 이래 이렇다할 성적을 내 본적이 없는 만년 하위팀.   
사정이 이렇다보니 연습에 제대로 참가하는 부원도 없고 당연히 팀 분위기도 엉망이다. 미나미는 매니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서점 직원이 추천한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를 구입하게 된다. 야구 매니지먼트에 대해 쓴 책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알려진대로 피터 드러커는 재계에 신봉자가 많은 ‘기업경영의 신’으로, <매니지먼트>는 그들에게 바이블과 같은 책이다. 당연히 야구와는 관련이 없는 책이다. 하지만 <매니지먼트>를 읽은 미나미는 이 책에 적힌 기업경영(조직관리)의 지침들을 하나하나 야구부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진지함이다”   
“변화를 원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관중을 움직이는 것은 감동이다”   
“사람의 장점을 살려 조직을 움직여라”   
  
드러커는 경영에 있어서 ‘고객 창조’와 ‘이노베이션’ ‘리더의 자질’을 끊임없이 역설해왔다. 미나미 역시 이 책에 따라 야구부에 있어서의 ‘고객’과 ‘이노베이션’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고교 야구부 역시 여러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노베이션은 기존의 것들을 모두 진부한 것으로 가정하는 전략을 취한다. 따라서 기존 사업에 관한 전략 지침이 ‘더 좋게, 더 많이’라고 한다면 이노베이션에 관한 전략 지침은 ‘더 새롭게, 더 다르게’여야만 한다.   
이노베이션의 전략의 첫걸음은 낡은 것, 도태되고 있는 것, 진부한 것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폐기하는 일이다. 이노베이션을 행하는 조직은 과거를 지키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쓰지 않는다. 과거를 버려야만 자원, 특히 인재라는 귀중한 자원을 해방시켜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출판사 서평)

**죽어라 일만 하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스마트한 성공들 (마틴 베레가드, 조던 밀른/ 걷는 나무)**

**“억울하겠지만, 잘 쉬는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한다!”   
단 10년 만에 무일푼에서 전 세계 1% 백만장자로 성장한   
세계 최고 기업가 25인이 들려주는 56가지 스마트한 성공 전략**   
  
아마존이 12억 달러에 인수한 자포스 CEO 토니 셰이,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중소기업 스레드리스의 창업자 제이크 니켈, 세계적인 사진 공유 사이트 플리커의 공동 창업자 카테리나 페이크, ‘인도의 빌 게이츠’라 불리는 인포시스의 공동 창립자 나라야나 무르티 등 이 책에 실린 25명의 세계 최고 기업가들은 주 35시간 이상 일하지 않으면서도 더 큰 성과를 내고 저녁은 가족과 함께 먹는 것을 당연하게 지키며 자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쓰고, 가족 친구들과 틈틈이 세계를 여행하면서도 업계의 판도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고 수백만 심지어 수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마틴과 조던은 그들로부터 배운 가족, 친구, 건강, 돈, 성공 그 무엇도 놓치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56가지 새로운 인생의 기술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이 책은 회사를 가족보다 우선시하며, 칼퇴근보다 야근이 마음 편하고, 높은 연봉을 받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일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인정받기 위해 지칠 때까지 스스로를 혹사시키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도 삶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줄 것이다.   
  
**“억울하겠지만, 잘 쉬는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한다!”   
죽어라 일만 하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스마트한 성공의 비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 구루로 불리는 마케팅 전문가 세스 고딘은 야후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으로 일할 당시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몇 달 동안 사무실에서 지내며 일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사무실에 갇혀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디어는 고갈됐고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는 몸마저 쇠약해져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더 좋지 않은 것은 한번 잃어버린 건강이 한 달을 쉰 후에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부터는 몇 달이 아니라 며칠만 무리해도 업무 효율이 뚝 떨어졌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은 후에야 성공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야후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 평균 근무 시간은 2090시간으로 하루 평균 10시간 30분 일하며 이는 OECD 평균인 1765시간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일과 삶의 균형’ 부문에서 한국이 전체 36개국 중 34위에 그쳤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반면 ‘노동 생산성’ 부문에서는 34개국 중 28위를, ‘행복감’은 33위를 기록했다. 오래 일하지만 생산성은 낮고, 피로가 계속 누적되고, 가족과는 점점 소원해지며 삶의 주도권을 잃은 채 이리저리 일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삶에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잘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으로 현재를 희생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 확률보다 훨씬 더 높다.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행복을 놓치지 않으면서 단 10년 만에 무일푼에서 세계 최고 기업가로 성장한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돌보라고 말한다. 돈은 벌었지만 함께 기뻐할 사람도 없고 몸은 만신창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일과 삶, 성공과 행복, 불안과 희망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삶은 더 많은 영감과 긍정적인 에너지, 빛나는 창의성을 주기 때문에 행복의 기회뿐 아니라 돈을 더 벌 수 있는 행운 또한 제공한다. 스스로를 쥐어짜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바라는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제 일과 삶,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에겐 열정과 야망, 성공을 여유 있고 멋진 삶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세 번째 선택권이 있다. 이 책은 일 외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충분히 삶을 즐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최고의 참고서가 될 것이다. (출판사 서평)

**1cm+ 일 센티 플러스 (김은주 / 허밍버드)**

**해외 번역 출간된 베스트셀러 《1cm》, 《달팽이 안에 달》의 작가   
김은주 카피라이터의 신작!**   
  
2008년 출간, “인생이 긴 자라면, 우리에게는 1cm만큼의 ( )가 필요하다”는 독특한 부제를 달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1cm》. 카피라이터 특유의 기발한 발상과 관찰력을 재기 발랄하면서도 인상적인 글과 그림으로 풀어내어 찬사를 얻었다.   
  
그리고 2013년 여름,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1cm+(1센티 플러스)》라는 제목에서처럼, 첫 ‘1센티’에서 보여주었던 재치와 위트, 감성을 한층 ‘플러스’해 새로운 이야기를 선보인다. 읽는다기보다는 보고, 느끼고, 이야기에 직접 참여하도록 이끄는 이 책은 어제와 똑같던 오늘에 청량감과 활기를 불어넣는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움직여, 하루하루를 실로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에너지를 담고 있다.   
  
**인생에 필요한 1cm를 찾아가는 크리에이티브한 여정!   
무심코 지나쳐온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참신한 발상이 반짝이는 글, 감성과 위트를 버무린 그림을 만나   
이제, 특별해진다**   
  
여기서 잠깐,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해보려 한다.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마주 보게 해 당신의 머릿속 1cm만큼의 폭을 만들어보자. 혹은 눈금자 없이 종이 위에 지름 1cm의 원을 그려봐도 좋다.   
그 뒤 그것을 자로 재어보자. 아마도 조금 전에 당신이 나타낸 것은 눈금자가 가리키는 1cm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그렇다. 1cm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치다.   
  
그러나 작가는 바로 이 작은 수치에 주목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cm만큼의 길이 혹은 깊이로 우리 인생에 더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 나선다.   
그 여정에서 1cm만큼 시선을 옮겨 보기도 하고(BREAKING), 남녀 간에 존재하는 1cm만큼의 차이를 발견하며(LOVING), 마음속으로 1cm 들어가 보고(FINDING), 1cm만큼의 여유를 권하거나(RELAXING),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1cm 좁히도록(GETTING CLOSER), 또 1cm의 꿈을 품도록(DREAMING) 독려한다.   
  
그리고 이처럼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한 편의 짤막한 글과 한 컷의 그림으로 강렬하게 전해진다. 잔잔하고 섬세한 감성의 결 사이사이에 의외의 위트와 날카로움이 자리 잡고 있다. 공감과 재미를 주는 것은 물론, 글과 그림이 하나로 어우러져 그 의미가 극대화되는 순간에는 짜릿함마저 느껴진다.   
  
1cm라는 상징과 그 의미는 그래서 결코 미약하지 않다. 그 어떤 원대한 메시지보다 더 심오할 수도 있다. 게다가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우리 곁에 다가와 일상에 관해 아주 쉽게 말해주고 있기에.   
이 책 《1cm+》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풀밭에 앉은 한 마리 나비인지도 모른다. 마치 나비효과처럼,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변화가 이 책을 통해 곧 찾아올 것이므로.   
우리 삶의 멋진 나비효과를 기대하며, 작은 날갯짓을 시작해보자. (출판사 서평)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